

aT, 한국정책대상 3년 연속 '우수상'

AI 기반 농산물 소비 혁신 정책 효과
위치 기반 구매정보·급식 서비스 운영
전국 5천600여 영양교사 행정업무 절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농산물 구매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3년 연속 우수 정책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aT는 26일 "지난 24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15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정책대상'은 정책의 창의성, 파급효과, 사회적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기관의 우수정책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aT를 포함해 총 14개 기관이 최종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T는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농산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AI 솔루션을 적극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위치 기반 최적의 농산물 구매처를 추천하는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 ▲전국 영양교사 대상 급식 식재료 추천 서비스인 '아이(AI)급식'이 있다. 특히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은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과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AI 10대 프로젝트'의 1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아이(AI)급식'은 AI를 활용한 간편 급식단가 산정 기능 등을 제공해 영양교사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작년 기준 전

국의 5천600여명의 영양교사가 활용해 총 7만5천 시간의 행정업무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영양과 맛을 고려한 식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부터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제공까지 다양한 혁신 노력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해 11월 'AI 전환 4대 전략'을 선포하고 민생을 살리는 AI 대국민 서비스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AI 수출 정보 검색 서비스 ▲농식품 바우처 AI 헬프데스크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AI 진화적인 고가치 데이터 개방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도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투데이경제



농협전남본부-농관원 전남지원 업무협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6일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고 출하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농협전남본부 임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농산물 안전성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정보 공유, 교육·홍보협력 ▲원산지 표시 점검 및 관리 강화, 관련 교육 및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안태호 기자



농협광주공판장,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은 26일 "지난 24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함께 광주 대촌농협과 나주 산포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산지 농업인의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공판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PLS(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 상세 설명과 전자송출장 사용법 안내를 통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였고 효율적인 출하 절차를 공유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창욱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장은 "생산자 농업인의 출하 가격 보전은 농협 공판장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도매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한전KDN, 락드실즈 6년 연속 참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 사이버훈련에 6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ICT 철벽보안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한전KDN은 26일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 2026'에 지난 20-24일까지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공공-민간 47개 기관 170명 규모의 훈련팀을 꾸렸다. 한전KDN은 이번 훈련에 자체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의 연합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로또복권

(제 1221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6 13 18 28 30 36 /보너스 9		
1등	1,830,801,165	6개 숫자 일치
2등	50,855,588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08,986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중기부, 중소기업 현장 애로 원스톱 지원

오늘부터 '현장클리닉' 신청·접수
12개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 진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27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혹은 유선을 통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통합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이며 시행성·속박업·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등 12개이다. 창업, 수출입, 기술분야는 최대 7일, 그 외에는 최대 3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며 자료료 35만원 중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루 7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으로 수준 높은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현장클리닉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번 없이 1357콜센터 상담,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www.s



전남도 '와이(Y)-팜 엑스포' 참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지역활성화 박람회 '와이(Y)-팜 엑스포 2026' 전남도 부스에 다양한 특산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mes.go.kr/bizlink)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위원의 추천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현장클리닉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단일 수행기관 체제로 운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행기관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한국생산성본부로 확대해 전문가 인력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상담 품질과 서비스 속도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진단 보고서도 새롭게 제공한다. 현장클리닉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AI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호 기자

심의를번호 220603-중-13977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